



Mr. Kang, Korean
13 weeks duration

안녕하세요 제이름은 강찬형입니다. 저는 이곳 CEBU ESL에서 지난 3개월간 Intensive ESL course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저는 여행을 좋아하는 편이기에 일본과 중국, 동남아와 유럽 등 많은 곳을 돌아다녔지만, 분명 토익 점수는 800점을 넘음에도 불구하고 완성된 문장 하나 말 못하고 버벅이며 그저 쪼개진 단어 하나하나만을 말 해왔습니다. 분명 머리 속에서는 어떤 단어를 어떤 식으로 말해야 하는지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막상 식당에서 주문을 해야 할 때, 길을 잃어 누군가에게 물어보아야할 때, 아니면 고즈넉한 저녁 외국인들이 친근하게 말을 걸어 왔을 때, 저는 말 한마디 못하고 그저 친구들에게 통역을 부탁할 뿐이었습니다. 그러한 답답한

경험들 때문에 저는 세부에서 회화공부를 하기로 결심했고, 어느덧 3개월이 지나 완벽하진 않지만 일상적인 대화는 부담없이 가능한 수준이 되었습니다.

그간의 제 경험에 비춰 봤을 때, 저에게 있어 영어회화의 가장 큰 걸림돌은 결국 두려움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평생 한국에서 살며 한국인만 보고 살아온 저에게 있어 낯선 땅, 낯선 기후, 그리고 낯선 사람들이란 일종의 미지에서 오는 공포와 같았습니다. 인종과 문화가 다르기에 감정표현과 표정과 몸짓마저 다른 이들과의 소통이란 저에게 그저 두려움이었기에, 제가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 따지기에 앞서 그저 물려서기만 했습니다. 결국 머릿속에 떠도는 말들이 그러한 두려움들에 떠밀려 입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점부터 해결하고자 저는 문법과 단어들은 둘째로 미루고 최대한 많은 대화가 가능한 학원을 찾아 필리핀의 어학원들에 대해 알게 되었고, 그 중에서 한국인 비율이 가장 적은 CEBU ESL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경험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필리피노들은 한국인들과 같은 것 같으면서도 참 많이 다릅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다가와 오래된 친구처럼 인사와 대화를 나누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듯 인사하며 다시 멀어져갑니다. 처음에는 이게 무슨 상황인지, 한국에서 그러하듯 사기나 보험, 혹은 종교권유에 대한 의심을 떨치지 못한채로 또다시 피하기에 급급했습니다만, 시간이 지나며 그들에겐 그저 호기심과 호의만을 있음을 알게 된 후 서로 짧은 영어로 손짓발짓해가며 몇 분간 짧은 대화를 하며 마음 편히 웃으면서 헤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또한 세부에서의 공부가지는 장점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에서 공부를 하며 느낀 것은 단순히 문법을 공부하고 단어를 외우는 것은 해외로 어학연수를 가는 것 보단 한국 내의 학원에서 공부하는 것이 시스템적으로 훨씬 잘 짜여져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렇듯 실제로 영어로 소통하고, 영어로 의사표현과 감정교류를 한다는 것은 한국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간 필리핀에서 생활하며 부족한 영어실력으로 인한 답답함, 홀로 타지인이란 사실로 인해 마주하는 외로움과 여러가지 사건 사고들을 체험하고 또 해결해오면서, 영어라는 것을 과제 혹은 스펙을 뛰어넘어 진정 언어로서 마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필리핀 내의 많은 학원들이 학원 내의 플랜을 통해 학원 내 수강생들에게 필리핀 내의 다양한 관광지들과 야외활동들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3개월간 세부에서 지내며 참 많은 곳을 돌아다녔습니다만, 그것은 학원의 자체적인 일정이 아닌 학원의 협력 하에 제 친구들과 함께 자체적으로 계획해 떠난 일정들이었습니다. 운이 좋게도 제가 세부에 지내는 기간이 세부에서의 가장 큰 축제기간인 Sinulog기간을 포함하고 있었기에 그 끝없는 인파의 소용돌이에 휩쓸려 어딘지도 모를 곳에 뜬금없이 홀로 떨어지거나, 길 위에서 마주친 필리피노들에게 단순히 한국인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호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제대로 마주한 필리핀의 민낯인 이 축제기간 동안의 경험 덕분에 제가 용기를 가지고 필리핀 여행을 적극적으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세부 섬 내의 관광지들은 물론, 보홀, 반타얀, 샤르가오와 같은 휴양지들을 혼자서, 일본인 친구들과, 때로는 필리핀 친구들과 돌아다니며 어쩌면 한국에서였다라면 3년이 걸렸어도 경험해보지 못했을 많은 추억들은 3개월동안 참 부지런히 끝도없이 쌓았습니다. 그 여행들 속에서 얻은 많은 경험들이 저에게 있어선 여행이란 단어가 주는 울림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러한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한국인 학원이 아니라 CEBU ESL에서 공부를 했기에 얻을 수 있었던 추억이라 믿습니다. 단순한 빈말이 아닌, CEBU ESL과 다른 학원이 차별화 되는 가장 큰 요인은 수강생들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점입니다. 오로지 공부만을 원하는 수강생이라면 학원 내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하루 8시간의 알찬 회화수업과 연습과 복습, 그리고 일일 과제를 통한 성적향상을 추구할 수 있고, 저와 같은 약간은 느슨하게 필리핀 그 자체를 느끼고 싶은 분들은 자체적으로 호텔, 또는 아파트를 계약해 세부에서의 생활을 만끽하고, 또 수업스케줄을 유연하게 조절하며 학원의 지원과 함께 세부의 곳곳을 자율적으로 여행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제가 이곳에서 지낸 기간동안은 한국인 수강생은 오로지 저 혼자였기에 오로지 영어만을 사용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 졌기에 그러한 점들이 제가 단기간에 영어실력을 향상시킬 계기가 되었습니다.

출국을 이틀 앞둔 지금 이 시점에서조차 제가 이곳 세부를 떠난다는 사실이 짙은 실감이 나진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길고, 어떻게 보면 짧은 3개월이란 기간에 정말 다양한 인연을 쌓고, 또 그렇게 만나게 된 친구들과 추억을 쌓았으며 다시 만나자는 약속으로 헤어지며 단순히 영어만이 아니라 많은 면에 있어서 성장했습니다. 여전히 많은 곳들을 가고 싶고, 새로운 수강생들과 친해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만 이제는 다시 또다른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늘상 그렇듯 돌아보면 아쉽고, 후회되는 순간들의 연속이었지만 한국에서 였다면 절대로 경험해보지 못했을 순간들이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저와 같은 심정으로 학원을 찾는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MAR 29, 2019

Kang